

다쏘시스템, ‘디지털 드림 9’ 최종 선발된 스타트업 슈퍼무브·위밋에 미래 모빌리티 혁신 지원

대한민국 서울, 2020년 12월 2일 – 다쏘시스템(www.3ds.com/ko)은 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생협력 정책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제 1탄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 9’ 성과공유대회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선정된 (주)슈퍼무브와 (주)위밋과 국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향한 협력의사를 밝혔다.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 9’은 대기업이 분야별 과제를 내고, 스타트업이 그 해법을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의 과제 해결형 공모전이다. 지난 7월 열린 과제 선포식에서 SKT가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과제를 제시했으며, 다쏘시스템은 자사 3D 가상도시 플랫폼을 참가업체에 제공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서울 삼성동 다쏘시스템 3D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개최된 ‘미래 통합 교통 시스템 개발’ 과제에 도전한 스타트업 최종 선발 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최종 선정된 2개의 스타트업 중 슈퍼무브는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 외에도 새롭게 등장한 공유 자전거, 1인용 전동기, 차량 동승 서비스, 셔틀버스까지 연계한 사용자 선호도 기반 최적 경로를 제시했으며,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려한 최적의 미래 모빌리티 사용자 이동경험을 가상 환경에 시각화하여 구현해 다쏘시스템의 높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다쏘시스템이 제공한 플랫폼은 도시의 모든 정보를 3D 가상 환경에 구현하여 현실의 도시문제를 시험 및 검증할 수 있는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도시의 모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교통 상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 모두가 편리한 최적의 교통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국내외 유수의 모빌리티 분야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콩, 프랑스 렌과 인도 자이푸르와 협력해 최적의 교통 통합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다.

디지털 드림9 프로그램을 총괄한 다쏘시스템코리아 한국정책협력총괄 정륜 대표는 “슈퍼무브의 아이디어를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렌더링한 것이 인상적이다.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최적화된 교통 인프라와 교통 수단을 도출하고, 기업에게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 조영빈 대표이사는 “변화 속에서 새로움을 만드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며, “스타트업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쏘시스템의 기술과 스타트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내 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다쏘시스템은 인류 발전을 이끄는 3D익스피리언스 기업이다. 기업과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는 협업 3D 가상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이 혁신, 학습 및 생산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가상 경험을 창출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쏘시스템은 140여 개국에서 27만 개 고객과 협력하여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다쏘시스템 코리아 소셜 채널]

다쏘시스템코리아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DassaultSystemesKorea>

다쏘시스템코리아 카카오톡: <https://go.3ds.com/q70>

다쏘시스템코리아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3DSKOR>

다쏘시스템코리아 블로그: <https://blogs.3ds.com/korea>

다쏘시스템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3ds.com/ko/>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다쏘시스템

정지민 대표 / PR & Communications 매니저

jeemin.jeong@3ds.com

앨리슨+파트너스 코리아

이혜연 대리

010-7310-2318

3dsKR@allisonpr.com